

대학생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

조 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지, 그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각각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에 따라 갖는 예언력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356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양식 질문지, 자기몰입 척도, 사회공포증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간의 관계를 각각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매개효과 차이 검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 및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는 성격 양식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보다, 성격 양식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지향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이르는 전체효과를 비교 검증한 결과, 사회지향성은 수행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더 강한 예언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지향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갖는 예언력을 비교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격 양식,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사회불안,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

[†] 본 연구는 조나영(201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2014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1649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Tel: 031-219-2771, E-mail : lmk@ajou.ac.kr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 나간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을 해나가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배우고 경험한다. 사회적 장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므로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혹은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장면, 특히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거나, 관찰을 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 혹은 수행에 기반 한 상황에 대해서 현저한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불안 증상을 나타낼 것을 두려워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대학 시기는 사회적 적응을 준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해나가는 기간이므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발표, 조별과제, 아르바이트, 데이트, 면접에 참여하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빈번하여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환경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박지연, 양남미, 2014). 대학생의 22%가 사회불안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고(Strahan, 2003), 대학시기에 사회불안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일반인구보다 5~6%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ssau, Conrardt, & Petermann, 1999). 사회불안은 학업적 수행을 비롯하여 직업적 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삶의 질 등을 저해시키고, 낮은 자아 존중감, 자살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장애이므로(Stein & Kean, 2000),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

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과 심리적 기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김향숙, 2001; 박선영, 2003; Beazley, Glass, & Chambless, 2001; Mattick & Clarke, 1998),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상황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장애의 증상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이해하여, 상황특성에 따른 하위유형으로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 등을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혀, 보다 효과적인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불안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취약성, 심리적 취약성, 유전, 기질, 인지양식, 부모와 동료의 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Ollendick & Hirshfeld-Becker, 2002; Rapee & Spence, 2004), 최근 들어서 우울 증상과 관련된 인지 요인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Koçkar & Gençöz, 2004). 선행연구자들은 그러한 요인들 중 성격 취약성 혹은 성격-인지 취약성이란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utton et al., 2011). Beck(1983, 1987)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성격 특성이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하나의 유형은 사회지향성(sociotropy)/의존성(dependency)의 성격 양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가치감을 얻으려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보상하려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에 민감하며,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특징적이다(Beck 1983, 1987). 그리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자율지향성(autonomy)/자기비난(self-criticism)의 성격 양식으로, 성취를 위한 기준과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로부터 자신의 가치감을 얻으려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과 목표가 관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완벽주의나 자기비난을 특징적으로 보인다(Beck 1983, 1987). 이러한 성향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하는 개인의 내적 취약성이 된다(Beck, 1983).

최근 들어 사회지향성/의존성 및 자율지향성/자기비난의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성격 양식이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취약성 요인이 밝혀졌다(Cox et al., 2000; Cox, Fleet, & Stein, 2004; Cohen et al., 2013; Sutton et al., 2011).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모두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조아라, 김혜영, 오경자, Nasreen, 2011). 또한 Brown, Juster, Heimberg와 Winning(1998)은 사회불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사건과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이 정신병리와 치료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사회공포증 환자들 중에서, 부정적인 생활사

건을 빈번히 경험한 환자들은 높은 우울 및 일반불안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자율지향성이 높으면서 부정적인 성취관련 생활사건을 빈번히 경험한 환자들은 사회불안 및 일반불안의 측정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Brown et al., 1998). 또한 자율지향성 수준과 부정적인 성취관련 생활사건의 빈도가 이러한 장애의 심각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했으며,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는 자율지향성이 높고 부정적인 성취관련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환자들이 다른 환자에 비해 사회불안 증상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1998). 반면에 사회지향성과 사회적으로 지향된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빈도 간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사회지향성의 주효과는 유의했으며, 사회지향성이 높은 환자들은 사회지향성이 낮은 환자에 비해 사회불안 증상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Brown et al., 1998). 그리고 Shahar과 Gilboa-Shechtman(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변인, 우울 증상,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 증상을 통제하더라도 자기비난과 의존성 관련 변인은 사회불안의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Sutton 등(2011)의 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은 사회불안과 징후가 중첩되고 공병률이 높은 우울 증상과 불안장애의 소인이 되는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연구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을 비롯한 성격 취약성 요인들을 사회불안과 같은 불안장애를 예측하는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성격 양식이 사회불안에 유의한 예언력을 갖고 있음이 지

지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검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Beck(1983)의 주장에 따라 사회지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기 가치감을 얻고자하고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실패에 민감하다는 특징과, 자율지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목표성취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얻고자하며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실패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고려하면(Beck, 1983),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장면에서 상호작용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수행불안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자료의 깊이와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성격 양식이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매개경로를 통하여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는 다루지 않았다. 사회불안의 발생 및 치료에는 ‘인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김은정, 2000),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겪는 사회불안에 대해 인지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지적 위험요인으로서 ‘자기초점주의(self-focused attention)’를 들 수 있는데, Clark과 Wells(1995)는 사회공포증의 인지모델을 제안하며,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상황에서 주의과정은 자기-인상을 관리하고, 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감찰하는 과정을 수반하도록, 자기에게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초점적 주의를 기울일 때, 내부 지각적 정보를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의 인상을 구성하는데 사용하는데, 자기초점적 주의를 외부환경으로의 주의를 감소시키고, 부정적 공포와 기대의 부당함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Clark & Wells, 1995). 다만, 이러한 자기초점적 주의를 자의식(self-consciousness)과 관련이 깊은 개념이며(정승아, 2012), 다차원적인 구조로서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로도 구분되고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4). 그 중 Ingram (1990)은 자기초점적 주의를 정도, 지속성, 융통성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병리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구분하였다. ‘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적정 수준의 자기초점적 주의로서 주의를 방향이 융통성 있게 전환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는 반면에 ‘병리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자기몰입(self absorption)’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과도하게 내부에 초점을 두는 주의이며, 비교적 영속적이고, 과도한 경직성(excessive rigidity)을 띄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Ingram, 1990).

국내의 연구자들도 자기초점적 주의를 내부-외부초점적 주의로서 다차원성을 띄고 있으며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크게 적응적인 차원과 부적응적인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세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지영과 권석만(2005)은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구분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를 개발하고, 하위척도로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성향 척도’와 과도하게 자신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 주의를 외부에

전환하기 어려운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몰입 척도’로 구분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옥주희(2013)는 ‘자기’의 측면들을 구분하여, 자기-내용에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자기-구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그리고 자기-과정에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해당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범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승재(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인 자기몰입과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은 자기몰입과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기초점적 주의는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고, 그 중에서 부적응적인 속성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며 인지 과정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맥락 안에서 대학생의 성격 취약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초점주의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지향성 혹은 자율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 혹은 실패에 대해 민감하고, 외부에 주의를 쉽게 돌리기 어려우며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해 반추하거나 비난을 하며 자신에 주의를 더욱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Beck, 1983; Gorski & Young, 2002; Nietzel & Harris, 1990; Wong & Mak, 2013). 그리고 최근까지 성격 양식과 정신병리들 간의 관계에서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주로 반추와 자의식으로 검증되어 왔다(Beck, 1983;

Green, Scott, DeVilder, Zeiger, & Darr, 2006). Beck (1983)은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고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 반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특정한 생활 스트레스 경험에 의해 상실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민감해진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Green 등(2006)은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양식이 사회불안, 자의식, 다른 사람의 거부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interpersonal rejection) 등을 비롯한 역기능적인 사회적 패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반추와 자의식을 자기초점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신의 내부 정보에 숙고하는 경향은 궁극적으로 자기내부에 과도하게 주의의 초점을 기울임으로서 외부로의 주의를 쉽게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 기대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기초점주의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Carver와 Scheier(1981)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현재 상태와 바라는 목표 혹은 기준과 비교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현재 상태와 개인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 간의 관계에서 불일치를 지각할 때, 만약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기초점적 주의는 증가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심화된다고 하였다(정승아, 오경자, 2005; Carver & Scheier, 1981, 1986). 현실과 이상의 목표 간의 괴리는 자신이 얼마나 통제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목표나 가치에서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

우에 자기초점적 주의가 지속되는 악순환으로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이다(김진영, 2000; Carver & Scheier, 1981; Filipp, Klauer, & Ferring, 1993; Wells, 1991). Beck(1983)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특정영역에서의 실패, 좌절, 상실의 경험에 민감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자기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역기능적 대처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Connor-Smith & Compas, 2002; DeLongis & Holtzman, 2005; Dunkley & Blankstein, 2000; Fairbrother & Moretti, 1998; Knoll, Rieckman, & Schwarzer, 2005), 국내에서 이유란(2013)은 성격양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후,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수행에 대한 자기의 평가가 절하되고, 중요한 목표로 두는 영역에서 실패로 지각하는 경험이 불일치 상태를 유발하며, 이를 위협상황으로 여기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복구하려는 내적 움직임으로 과도하게 자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정승아, 2012),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노력은 중단되기 어렵지만(김진영, 2000), 그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자기초점적 주의가 증폭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Carver & Scheier, 1981; Filipp et al., 1993; Wells, 199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역할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주요한 인지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과 인지적 요인으로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성격 취약성 그 자체로 사회불안의 위험요인이 되는지 혹은 성격 취약성이 유발하는 인지 과정이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제와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으면서 성취에 몰두하고, 낮은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으며 빈번히 사회불안의 위협에 노출되므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성격 취약성을 지닌 대학생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증상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매개과정으로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에 따른 영향력 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세분화된 치료계획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성격 취약성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인지 과정에 따른 문제라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비교적 개인에게 안정적인 내적 성격특성이라고 하더라도(Bagby et al., 2001), 어떤 부적응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사회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지적 과정으로서 부적

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즉,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수행불안간의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각 변인들 간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에 따라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의 유의성과 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이 단독으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갖는 예언력 간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한다.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2.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따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3.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따라 갖는 예언력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4년제 A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들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412부 중 문항을 다수 빠뜨리거나,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56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3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참가자들 중에서 남성은 193명(54.2%), 여성은 163명(45.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83세($SD=2.33$)였다.

측정도구

성격 양식 질문지(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 PSI-II). 개인의 성격 취약성을 세분화하여 측정하기 위해서 Beck, Epstein, Harrison과 Emery(1983)가 개발하고, 이후 Robins 등(1994)이 단점을 보완한 PSI 개정판을 국내에서 이민규(200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PSI-II(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48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1점 ‘동의 안함’에서 6점 ‘매우동의’)로 된 자기보고형식의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지향성 척도는 ‘타인에 대한 배려’, ‘기분 맞추기’, ‘의존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자율지향성 척도는 ‘완벽주의/자기비난’, ‘방어적 분리’, ‘통제욕구’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민규(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사회지향성 .83, 자율지향성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사회지향성 .87, 자율지향성 .88이었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사회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기초점적 주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기초점적 주의성향을 측정하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몰입'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자기몰입'은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특정한 측면에 과도하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외부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으로 자신의 특정한 측면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몰입 척도(21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몰입의 특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영과 권석만(2005)의 연구에서 자기몰입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여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여러 상황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반응을 기술하

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식의 척도이다. 총 19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형식(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여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과 사건을 기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식의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수행불안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 통계분석과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연구모형의 측정모형, 구조모형, 매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프로그램인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연구모형들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합

도지수인 χ^2 검증과 CFI(Comparative Fix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CFI와 TLI 지수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지수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또한 Mplus 6.12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인을 통해 성격양식의 유형별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이르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대비(contrast) 추정치를 통해 각 경로 간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양식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별로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갖는 전체 효과(total effect)를 측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대비(contrast) 추정치를 이용하여 각 경로 간 크기를 비교하였다. Mplus에서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전체 매개효과와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이 모두 가능하고, 가상변인을 이용하여 두 개의 매개효과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함으로써 어떤 매개효과가 더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홍세희, 2008). 또한 한 번의 분석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값인 전체효과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함으로써 독립변인이 어떤 종속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진행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로 및 경로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Muthén & Muthén, 2012).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지향성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50, p < .01$,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r = .56, p < .01$, 및 수행불안, $r = .51, p < .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율지향성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 = .45, p < .01$,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r = .54, p < .01$, 및 수행불안, $r = .52, p < .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 변인의 개념을 타당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사회불안의 수행불안과 상호작용 불안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Ru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356)

	1	1-1	1-2	1-3	2	2-1	2-2	2-3	3	4
1. 사회지향성	1									
1-1. 타인에 대한 배려	.88**	1								
1-2. 기분 맞추기	.87**	.67**	1							
1-3. 의존성	.72**	.52**	.38**	1						
2. 자율지향성	.45**	.46**	.33**	.33**	1					
2-1. 완벽주의	.54**	.54**	.42**	.38**	.66**	1				
2-2. 방어적 분리	.31**	.33**	.24**	.20**	.93**	.47**	1			
2-3. 통제욕구	.40**	.40**	.27**	.35**	.89**	.45**	.71**	1		
3. 부적응적자기초점주의	.50**	.52**	.42**	.28**	.45**	.45**	.40**	.32**	1	
4.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56**	.58**	.50**	.28**	.54**	.43**	.49**	.46**	.57**	1
5. 수행불안	.51**	.52**	.46**	.26**	.52**	.44**	.46**	.44**	.67**	.72**
M	3.68	3.82	3.67	3.57	3.29	3.25	3.25	3.37	2.19	1.65
SD	.59	.77	.69	.68	.61	.85	.64	.74	.77	.70
왜도	-.36	-.46	-.24	-.06	-.24	-.004	-.03	.26	.64	.15
첨도	.04	.46	.25	.10	.41	-.27	.13	.36	-.15	-.43

**p<.01.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χ^2	df	CFI	NFI	TLI	RMSEA
측정모형	276.399***	94	.964	.946	.954	.074 (.064~.084)

***p<.001.

미 제작(item parcelling)에 의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94)=276.399$, $p<.001$, CFI=.964, NFI=.946, TLI=.954, RMSEA=.074. 그리고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측정변수로 5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수립된 연구모형들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1(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94)=276.399$, $p<.001$, CFI=.964, NFI=.946, TLI=.954, RMSEA=.074. 또한 연구모형2(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도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98)=387.320$, $p<.001$, CFI=.942, NFI=.925, TLI=.929, RMSEA=.091. 그리고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수행불안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부분매개 모형(연구모형1)과 완전매개 모형(연구모형2)은 포함관계이므로, 두 연구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도 5%수준에서 두 연구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차이가 4일 때, χ^2 의 차이는 9.49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두 모형 간의 차이는, $\Delta\chi^2(4)=110.921$,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거쳐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으로 가는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 2)보다 그 모형에서 사회지향성이 사회불안의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자율지향성이 사회불안의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1)이 설명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1을 채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인 부분매개에 대한 연구모형1의 경로계수는 그림 1과 표 4에 제시되었고,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2)의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CFI	NFI	TLI	RMSEA	$\Delta\chi^2$
연구모형1 (부분매개모형)	276.399***	94	.964	.946	.954	.074 (.064~.084)	110.921***
연구모형2 (완전매개모형)	387.320***	98	.942	.925	.929	.091 (.082~.1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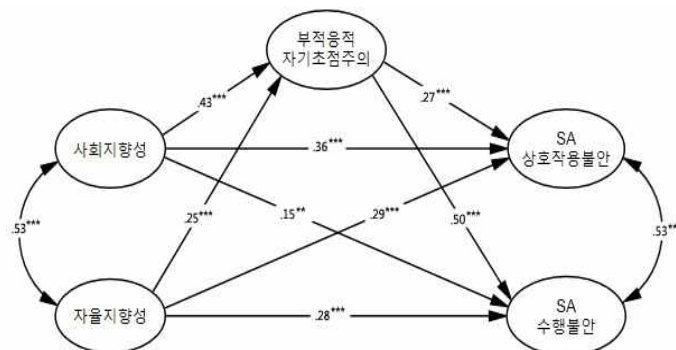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1)의 각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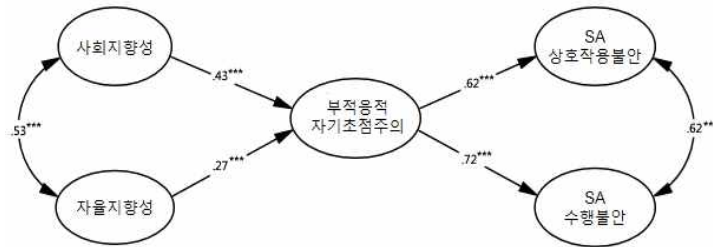


그림 2.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2)의 각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

** $p < .01$, *** $p < .001$.

표 4.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S.E	C.R
사회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670	.431	.099	6.765***
자율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378	.247	.099	3.829***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06	.265	.040	5.113***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사회적 수행불안	.405	.499	.041	9.756***
사회지향성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432	.359	.072	6.012***
사회지향성 → 사회적 수행불안	.187	.148	.069	2.729**
자율지향성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345	.291	.070	4.939***
자율지향성 → 사회적 수행불안	.342	.276	.070	4.897***

** $p < .01$. *** $p < .001$.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에서 변인들의 매개효과와 매개효과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각 매개효과들의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

주의를 통해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a)와 사회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b)가 유의하였고, 자율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하여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c)와 자율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하여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d)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수행불안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지향성이 사회불안의 두 하위유형에 따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각각 매개하는 영

표 5.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B)	S.E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lower 95%	upper 95%
사회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상호작용불안(a)	.096	.022	.057	.145
사회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수행불안(b)	.175	.031	.120	.241
자율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상호작용불안(c)	.078	.027	.031	.141
자율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수행불안(d)	.142	.043	.063	.233
전체 매개 효과	.491	.079	.352	.674
a - b	-.079	.023	-.131	-.040
c - d	-.064	.024	-.123	-.027

주. N=356, Bootstrap samples=5000, Estimate는 비표준화 계수.

향력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와 사회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a-b). 그 결과, 95% 신뢰구간(-.131~-0.040)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가 사회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보다 유의하게 강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자율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와 자율지향성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해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간접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c-d). 그 결과, 95% 신뢰구간(-.123~-0.027)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율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는

자율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보다 유의하게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매개효과 간 대비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은 표 5에 제시되었다.

최종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갖는 예언력의 비교 검증

독립변인인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과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의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각 경로의 전체효과(total effect)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격양식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갖는 예언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을 총효과 또는 전체효과라고 하며, 이것은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을 의미한다(이상균, 2007). 분석 결과, 모든 경로의 전체효

과는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 간접효과와 사회지향성의 직접효과를 더한 전체효과(a)와 사회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 간접효과와 사회지향성의 직접효과를 더한 전체효과(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율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 간접효과와 자율지향성의 직접효과를 더한 전체효과(c)와 자율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매개하는 간접효과와 자율지향성의 직접효과를 더한 전체효과(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지향성이 사회불안의 두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서 전체효과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와 (b)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구간(.020~.183)에 0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회지향성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하여 상호작용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사회지향성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하여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의 전체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수행불안보다 상호작용불안에 더 강한 예언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율지향성이 사회불안의 두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서 전체효과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와 (d)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구간(-.171~.112)에 0을 포함하여, 자율지향성이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 모두에 유의한 예언력을 갖지만,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른 예언력의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전체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전체효과 간 대비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전체효과 및 전체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B)	S.E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lower 95%	upper 95%
사회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상호작용불안 경로의 전체효과(a)	.397	.052	.294	.497
사회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수행불안 경로의 전체효과(b)	.296	.054	.188	.403
자율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상호작용불안 경로의 전체효과(c)	.423	.082	.277	.600
자율지향성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 수행불안 경로의 전체효과(d)	.460	.086	.303	.639
(a) - (b)	.101	.041	.020	.183
(c) - (d)	-.037	.072	-.171	.112

주. N=356, Bootstrap samples=5000, Estimate는 비표준화 계수,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등 정신병리의 근본적인 개인의 취약성 요인이 되는 성격 양식이 부적응적 인지적 과정을 거쳐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인지 과정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 증상에 이르는 경로를 알아보고,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와 성격 양식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거쳐 사회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양식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을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은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의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부분 매개로 하여서도 사회적 수행불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격양식이 사회불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연구결과(Brown et al., 1998; Sutton et al., 2011)와 일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를 위한 기준과 목표는 관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좌절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다(Beck, 1983). 또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비난은 회피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고, 사회불안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ver & Scheier, 1982; Clark & Wells, 1995; Cox et al., 2004;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 혹은 성취 영역과 같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생활 영역은 다르지만, 관계 혹은 성취 영역에서의 실패 혹은 상실을 직면할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예민해지는 동시에 사회적 수행에 대한 자기의 평가는 절하되며 개인적인 목표의 좌절이나 실패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이 유발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간접효과와 관련하여, 사회지향성 혹은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고, 증가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인해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수준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 사건 혹은 실패에 대해 민감하고, 자신의 부적절성에 대해 반추하거나 비난을 하며 자신의 내부에 지나치게 속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확장한 것이며(Beck, 1983; Gorski & Young, 2002; Green et al., 2006; Nietzel & Harris, 1990; Wong & Mak, 2013), 개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은 자기초점적 주의를 유발하고, 개인이 그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행동을 회피하도록 만들며, 이후 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Carver, Blaney, & Scheier, 1979; Carver & Scheier, 1981, 1986, 1990; Filipp et al., 1993; Wells, 1991). 즉, 성격양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특정한 생활 스트레스 경험에 의해 상실의 경험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민감해지는데, 인지적 과정으로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유발되어 자신의 부적절성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외부환경으로의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부정적 공포와 기대의 부당함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하여,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의 수준을 심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두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들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간접효과는 사회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와 자율지향성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 보다 사회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와 자율지향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 취약성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수행불안에 유의하게 더 많은 예언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저조한 사회적 수행에서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lark, 2001). 즉, ‘자기초점적 주의의 증가’는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사회적 수행 부진을 야기하는 기제이며 주의의 초점을 지나치게 자신의 내부에 두는 것은 과제와 타인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Clark, 2001).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성격 취약성에 의해 유발된 자기초점적 주의는 사회불안의 상호작용불안과 사회적 수행불안 유형 모두를 예측하는 요인이지만, 사회적 수행의 상황에서 특히 자기초점적 주의의 역할이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지향성은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의 하위유형에 모두 유의한 전체효과를 갖지만,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수행과 관련된 불안보다 대인관계의 상호작용불안에 유의하게 더 큰 전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수행불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더 강한 예언력을 갖는 것이며, 사회지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수행불안보다 상호작용불안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eck(1983)에 따르면, 사회지향성 유형인 사람들이 가진 전반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에서 자기 가치감을 얻으려하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사회적 거절을 회피할 뿐 아니라, 거절 받는 것에 쉽게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성향을 보인다(Beck, 1983; Blatt, 1974; Robins & Block, 1988). 그리고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고(Beck, 1983), 대인관계에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김은정, 1998; 최지선, 2011), 자신의 성취와 수행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수행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수준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reen 등(2006)은 사회지향성의 성격 양식이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특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의 대인관계 양식은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지향성 유형 집단이 자율지향성 유형 집단에 비해 역기능적 인지의 수준이 높았고, 애착관계형성에서 친밀성을 느끼기가 더 어려우며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여(김은정, 1998), 본 연구의 결과도 사회지향성의 성격과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식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수용과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하는 사소한 사건에도 취약하므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수행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뿐 아니라, 수행불안에도 유의한 예언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Beck, 1983), 자신의 사회적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장면에서의 좌절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 염려할 수 있으므로 불안을 경험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의 불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Sato, McCann, & Ferguson-Isaac, 2004). 따라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은 다른 사람의 평가, 비난, 혹은 거부를 당하는 장면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수행과 관련된 장면에서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율지향성은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에 대한 전체효과가 유의하였지만,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른 전체효과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지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행불안에 더 강한 예언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수행불안과 상호작용불안 모두를 예측하는 성격-취약성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ck(1983)은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성취를 위한 기준과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과 목표는 관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며, 이들이 좌절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비난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비난은 개인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 처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hahar, 2001). 그리고 사회불안의 여러 이론적 개념은 낮은 자기-가치감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비난은 사회불안의 증상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를 고려할 때(Clark & Wells, 1995; Cox et al., 2004; 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Rapee & Heimberg, 1997),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도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높은 기준

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패로 지각하는 경험은 이들의 자기비난 수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수행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일상 업무(daily task)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고(Sato et al., 2004), 대인관계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식을 갖고 있다(Mongrain, Vettese, Shuster, & Kendal, 1998; Priel & Besser, 2000; Whiffen & Aube, 1999; Whiffen, Aube, Thompson, & Campbell, 2000). 따라서 자신의 성취나 수행 장면에서의 실패나 좌절에서 경험하는 불안 외에도 대인 간 상호작용 장면에서 경험하는 부적응이 상호작용 불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 관련 연구들의 상당수가 주로 우울장애와의 관련성을 검증해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이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여(Brown et al., 1998; Sutton et al., 2011), 개인 내부의 성격-인지 취약성과 사회불안의 연구로 확장시킨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불안의 상황특성을 세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척도를 함께 사용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사회적 수행불안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구조 모형에서 검증하였고,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과 그 특정한 관계를 밝혔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은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증상 모두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수행불안보다 상호작용불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더 취약한 유형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치료에서는 추후 개인의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른 개입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역할을 검증하여,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의 상황에 따른 불안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매개변인의 특징적 예언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관련하여, 성격 양식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가 성격 양식과 상호작용불안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상호작용불안에서보다 수행불안에서 더 위험이 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과 사회적 수행불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매개변인으로서 인지과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심리적 기제를 밝힌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장면에서 사회불안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적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임상적 의의가 있다. 대학생들은 비교적 익숙하고 제한된 상황에 노출되는 중고생 집단과는 달리, 이들은 새롭거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여, 식사장면, 사교모임 등 광범위한 장면에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이들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

고, 학업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하여 빈번히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사회적 장면에서 상호작용불안이나 수행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양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사회불안 간의 유의한 관계를 고려하여 치료적 개입을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추후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을 지닌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증상에 대한 개입은 인지 과정으로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에 초점을 두고, 특히 사회불안의 수행불안에 대한 개입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교정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더 큰 위험 요인이므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사건에 민감한 이들의 성향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하는 원인이며(Beck, 1983), 이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DeLongis & Holtzman, 2005; Knoll et al., 2005).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격-취약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실패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것과(Beck, 1983), 사회불안 환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정도는 CBGT(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CBGT)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밝혀졌다(Brown et al., 1998). 그러므로 사회지향성 혹은 자율지향성이 높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불안의 치료 장면에서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혹은 인지행동집단치료(CBGT)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을 많이 보고하면서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양식을 구분하여, 주마다 개인적으로 겪은 사건들을 기술하고, 상황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기 위한 역할 연기를 진행하는 것이 치료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인지적 틀(cognitive framework)내에서 그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들의 비합리적 기대 및 신념과 자기초점적 주의의 부적응적인 속성을 교정한다면 사회불안의 증상은 유의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불안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사회불안의 진단기준에서 1가지 또는 그 이상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란 일상적인 상호작용 상황, 관찰을 당하는 상황, 다른 사람 앞에서 수행을 하는 상황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특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성격 양식과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증상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사회불안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

폐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구성개념들은 동시에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성격 취약성 요인들이 개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인 요인이며, 이후의 정신병리를 야기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으나(Bagby et al., 2001), 횡단적 설계 연구는 취약성-스트레스 이론을 검증하거나, 가정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인과적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양식을 지닌 집단을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과정과 이후의 사회불안 증상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교에서 남녀 대학생 표본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회불안장애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고려하면(조맹제 외, 2004), 성격 취약성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에 이르는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 표본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별을 구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적 상태가 성격 취약성, 인지 과정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및 사회불안 증상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평정결과와 객관적인 평정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정 (1998).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 김은정 (2000). 사회공포증: 남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서울: 학지사.
-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8.
- 오강섭, 허효연, 이시형 (1999). 상호작용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1), 64-76
- 옥주희 (2013).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승재 (2014). 자기몰입과 사회불안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규 (2000). 한국판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05-317.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2, 19-36
- 이유란 (2013).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51-464.
- 정승아 (2012). 사회불안과 자의식, 그 진단적 및 치료적 시사점. 상담학연구, 13(1), 47-69.
- 정승아, 오경자 (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71-482.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조맹제, 함봉진, 김장규, 박강규, 정은기, 서동우, ... 이충경 (2004). 한국 정신장애의 역할 조사 연구(I): 각 정신장애의 유병률. 신경정신의학, 43(4), 470-480.
- 조아라, 김혜영, 오경자, Nasreen, K. (2011). 한국 대학생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구조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337-347.
- 최지선 (2011).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일반적 자기초점주의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8).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급 방법.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 4 자료집, 서울: S & M 리서치 그룹.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PA
- Bagby, R. M., Gilchrist, E. J., Rector, N. A., Dickens, S. E., Joffe, R. T., Levitt, A., ... Kennedy, S. H. (2001).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otropy and autonomy personality dimensions as measured by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765-779.
- Beazley, M. B., Glass, C. R., Chambless, D. L., & Arnkoff, D. B. (2001). Cognitive self-statements in social phobia: a comparison across three types of social situ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781-799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5-37.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Philadelphia, America.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 Study Child*, 29, 107-157.
- Brown, E. J., Juster, H. R., Heimberg, R. G., & Winning, C. D. (1998). Stressful life events and personality styles: relation to impairment and treatment outcome in patients with social phobia.

-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233-251.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arver, C. S., & Scheier, M. F. (1982). Control theory: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ality social,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 111-135.
- Carver, C. S., & Scheier, M. F. (1986).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responses to anxiety: The interaction between expectancies and self focused attention. In R. Schwarzer (Ed.), *Self-related cognitions in anxiety and motivation* (pp. 111-141). Hillsdale, NJ: Erlbaum.
- Carver, C. S., & Scheier, M. F. (1990).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ction and emo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2.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3-52). New York: Guilford Press.
- Carver, C. S., Blaney, P. H., & Scheier, M. F. (1979). Focus of attention, chronic expectancy, and responses to a feared stimul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86-1195.
- Clark, D. M. (2001). A cognitive perspective on social phobia. In W. R. Crozier, & L. E. Alde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pp. 405-430). New York, NY, US: John Wiley & Sons Ltd.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Heimberg et al.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R., Young, J. F., Hankin, B. L., Yao, S., Zhu, X. Z., & Abela, J. R. Z. (2013). Personality predispositions in Chinese adolescents: the relation between self-criticism, dependency, and prospective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6), 596-618.
- Connor-Smith, J. K., & Compas, B. E. (2002). Vulnerability to social stress: Coping as a mediator or moderator of sociotrop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1), 39-55.
- Cox, B. J., Fleet, C., & Stein, M. B. (2004). Self-criticism and social phobia in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 227-234.
- Cox, B. J., Rector, N. A., Bagby, R. M., Swinson, R. P., Levitt, A. J., & Joffe, R. T. (2000). Is self-criticism unique for depression? A comparison with social phobi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23-228.
- DeLongis, A., & Holtzman, S. (2005). Coping in context: The role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in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24.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65-676.
- Essau, C. A., Conradt, J., & Peterson, F. (1999). Frequency and colorabil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9), 831-843.
- Fairbrother, N., & Moretti, M. (1998). Sociotropy, Autonomy, and Self-Discrepancy: Status in Depressed, Remitted Depressed, and Control

- Participa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3), 279-296
- Filipp, S. H., Klauer, T., & Ferring, D. (1993). Self-focused attention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threat. In H. W. Krohne (Ed.), *Atten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in coping with aversiveness* (pp. 268-294). Goe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Gorski, J., & Young, M. A. (2002). Sociotropy/autonomy, self-construal, response style, and gender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463-478.
- Green, M. A., Scott, N. A., DeVilder, E. L., Zeiger, A., & Darr, S. (2006).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 a function of bulimic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943-951.
- Ingram, R.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Knoll, N., Rieckman, N., & Schwarzer, R. (2005).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and stress outcomes: A longitudinal study with cataract surgery patien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 229-247.
- Koçkar, A. I., & Gençöz, T. (2004).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preparing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in Turkey. *Current Psychology*, 23, 138-146.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308-321.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ongrain, M., Vettese, L. C., Shuster, B., & Kendal, N. (1998). Perceptual biases, affect, and behaviour in the relationships of dependents and self-cri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30-241.
- Muthén, B., & Muthén, L. K. (2012). *Mplus User's Guide*. Seven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ietzel, M. T., & Harris, M. J. (1990). Relationship of dependency and achievement/autonomy to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279-297.
- Ollendick, T. H., & Hirshfeld-Becker, D. R. (2002).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social anxiety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51, 44-58.
- Priel, B., & Besser, A. (2000).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among first-time mothers: the roles of global and specific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7-450.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737-767.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Robins, C. J., & Block, P. (1988). Personal vulnerability,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specific interac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 Robins, C. J., Ladd, J. S., Welkowitz, J., Blaney, P., Kutcher, G., & Diaz, R.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to, T., McCann, D., & Ferguson-Isaac, C. (2004). Sociotropy-autonomy and situation-specific anxiety. *Psychological Reports, 94*, 67-76.
- Shahar, G. (2001). Personality, shame, and the breakdown of social ties: The voice of quantitative depression research.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4*, 229-238.
- Shahar, G., & Gilboa-Shechtman, E. (2007). Depressive personality styles and social anxiety in young adult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1*, 275-28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347-366.
- Stein, M. B., & Kean, Y. M. (2000).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social phobia: Epidemiological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606-1613.
- Sutton, J. M., Mineka, S., Zinbarg, R. E., Craske, M. G., Griffith, J. W., Rose, R. D., ... Mor, N. (2011). The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s with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 381-393.
- Wells, A. (1991). Effects of dispositional self-focus, appraisal and attention instructions on responses to a threatening stimulus. *Anxiety Research, 3*, 291-301.
- Whiffen, V. E., & Aube, J. A. (1999). Personality, interpersonal context, and depression in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369-383.
- Whiffen, V. E., Aube, J. A., Thompson, J. M., & Campbell, T. L. (2000). Attachment beliefs and interpersonal contexts associated with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84-205.
- Wong, C. C. Y., & Mak, W. W. S. (2013). Differentiating the role of three self-compassion components in buffering cognitive personality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mong Chinese in Hong Ko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162-169.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26일

논문심사일: 2017년 6월 14일

게재결정일: 2017년 7월 6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7. Vol. 22, No. 3, 603 - 627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Style and Social Anxiety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Na-Young J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Min-Ky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spective relation between two personality predispositions: sociotropy-autonomy and social anxiet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it was also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 of sociotropy-autonomy on the two subtypes of social anxie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356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II, the Self-Absorption Scale,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revealed that a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autonomy and two subtypes of social anxiety.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sociotropy and autonomy had direct effects on two subtypes of social anxiety, and indirect effects on two subtypes of social anxiety, mediated by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econd, the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had relatively stronger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tropy-autonomy and performance anxiety, t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tropy-autonom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rd, sociotropy had a stronger predictive power for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an performance anxie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dictive power of autonomy for the two subtypes of social anxiety. Finall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ersonality style, sociotropy, autonomy,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ocial anxie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performance anxiety